

#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직업준비도와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전혜영\*·박재국\*\*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직업준비도,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여 취업 직전 학령기인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와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 고등학생 및 전공과 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Mplus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준비도는 자기결정력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결정력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결정력이 직업준비도와 진로성숙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며 총 효과가 매우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발달장애 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직업준비기술뿐만 아니라 자기결정력을 높여주어야 함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Key word:** 발달장애 고등학생, 직업준비도,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 사회인지 진로이론

## I. 서론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개인의 진로 발달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진로 상담과 교육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그 중 장애학생의 취업은 빈곤 탈출과 자립생활을 위해 진로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이성봉, 2013) 지적인 능력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은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 이후에도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직장에서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진로 경험이 자기지식으로 체득되지 않고, 직업 지식이 부족하며 효능감 발달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이며(Ochs & Roessler, 2004) 요인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학습경험은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직업준비도가 자기결정력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력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고, 자기결정력이 직업준비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른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직업준비도,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P시에서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고등학생과 전공과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검사도구

### 1) 직업준비도

대구장애인복지관(2006)에서 제공하는 직업준비도 척도 48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39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상생활기술, 인지기술, 직업의식, 사회기술, 작업기술 등 5개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9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자기결정력

Hoffman 등(2001)의 척도와 Hoffman 등(2004)이 개정한 척도를 비교하여 기존 30문항에서 28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지식, 자기가치, 계획성, 실천력, 결과에 대한 평가, 일반 자기결정 등 6개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진로성숙도

김동일과 김정선(2014)이 개발한 장애청소년 진로성숙도 검사척도 32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22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진로계획, 진로능력, 진로태도 등 3개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 결과

### 1. 변인 간 상관관계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개의 높은 상관관계( $r=.45\sim.84$ ,  $p<.001$ )를 보이는 것 외에는 적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동일 잠재 변인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아야 하나는 가정을 충족시켰다.

### 2. 측정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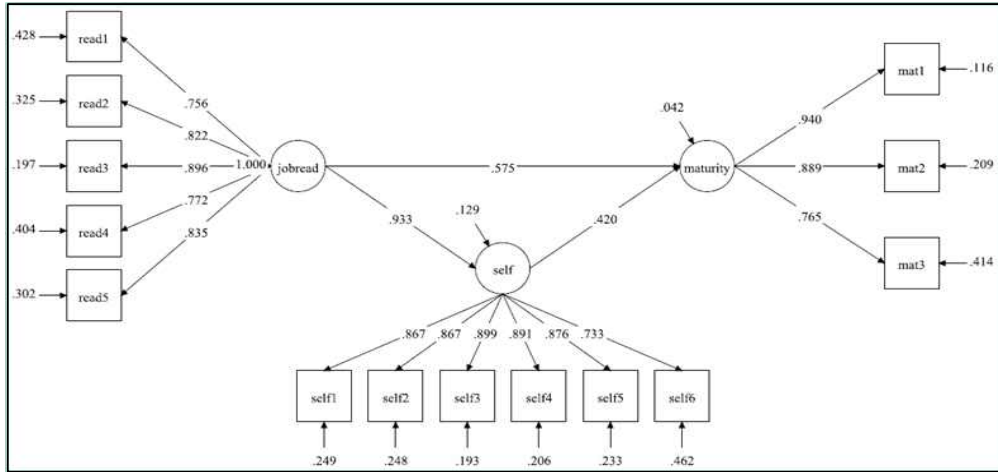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CFI는 .94, TLI는 .93, SRMR은 .03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직업준비도는 .76~.90, 자기결정력은 .73~.90, 진로성숙도는 .77~.94로 .50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VE를 살펴보면 직업준비도는 .79, 자기결정력은 .84, 진로성숙도는 .85로 나타나 .50이상으로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별타당도를 확보하고자 SMC값을 AVE값과 비교한 결과 직업준비와 자기결정력은 .72, 직업준비와 진로성숙은 .76, 자기결정과 진로성숙은 .79로 나타나 AVE값보다 작게 나타나 각 변인은 다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3. 구조 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발달장애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준비도가 자기결정력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력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CFI, TLI, SRMR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와 그림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모형 적합도

$\chi^2$	df	$\chi^2/df$	$p$	CFI	TLI	SRMR	RMSEA
239.90	74	3.24	.000	.94	.93	.03	.11(.09-.12)



[그림 1] 최종모형

마지막으로 직업준비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력의 매개효과 검정을 하고자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n은 클수록 좋으므로 100,000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95%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9$ , Bias-corrected CI=.05-.74).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직업준비도,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의 검증을 통해 자기결정력이 학습경험과 진로성숙에 매개하는 중요한 효과를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직업준비 기술교육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기인식부터 계획하고 실천을 하는 전략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박재국 외, 2008) 습관화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김동일, 김경선 (2014). 장애청소년용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대구장애인복지관 (2006). 직업준비검사. 대구: 대구장애인복지관.

박재국, 김영미, 김혜리, 구신실 (2008).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전환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239-255.

이성봉 (2013).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과 취업 성과와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293-311.

Hoffman, A., Field, S., & Sawilowsky, S. (2004). Self-determination assessment battery. User's guide. Retrieved June, 10, 2010.

Ochs, L. A., & Roessler, R. T. (2004). Predictors of career exploration intentions: A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perspectiv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4), 224-233.